

최희문 부회장의 마법, 3분기에도 통했다

메리츠證 ‘트리플 크라운’ 달성... 대형 IB ‘퀀텀점프’

(자기자본 3조)

MERITZ 메리츠증권증권

영업익·세전이익 등 분기 사상 최대
자기자본 5000억 → 3조3600억원
3분기 순익 1073억 전년비 19.4% ↑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 메리츠증권증권의 돌풍이 갈수록 거세다. 3분기 순영업익, 영업이익, 세전이익에서 각각 분기 기준 사상 이래 최대 규모 실적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메리츠증권식’ 영업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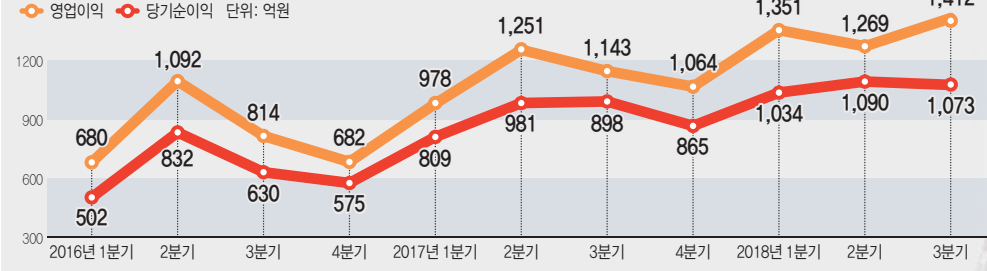
최희문 메리츠증권증권 부회장의 마법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는 2010년 대표가 된 뒤 거의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 치웠다.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이 확실히 되고 있다. 취임 당시 자기자본 5000억원대 중소형 증권사였던 메리츠증권증권을 3조3649억원의 대형사로 키웠다.

부동산 금융 특화 회사에서 종합 IB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최희문 부회장의 큰 그림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관심이다.

◆ 최희문 부회장의 마법, ‘트리플 크라운’ 달성

메리츠증권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

메리츠증권증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1412억원과 세전이익 1482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고 세전이익은 25.0%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지난 2분기에 비해서도 각각 11.2%와 1.1%씩 상승했다.

영업이익에서 판매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을 차감한 순영업이익(순매출액)은 267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7% 늘고, 전분기 대비 13.4%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8억원 보다 19.4% 확대되고, 전분기 비해서는 1.6% 감소했다. 영업외손익의 차이이다.

메리츠증권증권은 3분기 순영업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에서 각각 분기 기준 사상 이래 최대 규모 실적으로 ‘트리플 크

라운’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들어 3분기 연속해 분기 1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의 랠리를 지속했다. 이로써 1월부터 9월 말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3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9% 성장했다.

메리츠증권증권은 지난해 11월 자기자본 3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 자격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 증시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채권 트레이딩과 기업금융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도 안정적 실적을 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3분기 누적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상위

권인 12.8%를 기록했다.

◆ 부동산금융 전문사에서 탈피, 포트폴리오 다변화

메리츠증권증권은 부동산 금융 특화 회사에서 종합 IB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철저한 계산 아래 메리츠증권의 먼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임원 회의에서도 “다른 증권사들이 하는 것들을 무작정 좇지 말고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자”고 강조한다. ‘신중하게 결정하되 남과 다르게 한다’는 게 최 부회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은 “과거 국내 부동산금융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인수금융 등 IB 역할 강화,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 주기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을 통한 트레이딩 캐피탈 축적 전략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면서 “2020년 증금(종합금융) 라이선스 반납 영향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실제 2분기 호주 시드니 공동주택 사업부지 담보 대출 외 5건(2140억), 3분기 호주 케스트럴(Kerstrel) 광산 인수금융 관련대출 외 4건(4850억) 등 영국, 독일, 홍콩, 베트남 등에서 딜소싱을 진행 중이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잔고도 8월말 기준 3조7000억원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채권잔고는 14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증권은 대형 IB면허 취득에 따라 증권복을 통한 대출을 진행해 증권복이 9월 2조1000억원에서 연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 원재용 연구원은 “최근 IB투자 확대로 영업용순자산비율(NCR)이 하락하고 있으나 4분기 부동산 매각으로 NCR은 5~10%포인트 추가로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자산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원 연구원은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사원 채용보다는 대형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한 경험이 있는 PB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IPO 간담회

‘1호 골프장 상장사’... 60만 회원 DB가 자산

KMH신라레저

예약 플랫폼 강화로 수익성 증대

골프 및 레저 전문기업 KMH신라레저가 내달 말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KMH신라레저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7, 8일 수요예약을 거쳐 14, 15일 청약 실시하고 22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신라레저는 경기도 여주에 27홀 규모의 프리미엄 대중제 골프장인 신라C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라CC는 모회사 KMH가 인수한



이후 2015년 기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2014년 26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윤준학 신라레저 대표는 “신라CC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했던 노후 코스로 시설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경기 운영의 전문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골프장 부문 브랜드 가치 1위를 달성했다”며 설명했다.

또 자회사 케이에이레저와 함께 49.9% 지분을 보유한 18홀 규모의 파주 컨트리클럽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며, 관계회사가 보유한 중부권 최대 37홀 규모인 떼제베CC의 위탁 운영도 하고 있다. 특히 파주CC는 지난해 영업이익률 53%를 기록하며 업계 최상위권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골프의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지면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골프장 전체 매출 규모는 연평균 4.3% 증가했으며 지난해 시장 규모는 4조2360억원을 기록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라레저의 매출액은 184억1000만원, 영업이익 82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8%, 39.2% 증가했다.

신라레저 수익성 증대는 예약 플랫폼 강화에 기인한다. 현재 신라레저는 온·오프라인 예약 플랫폼인 골프몬과 골부킹으로 약 60만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9200원~1만1800원으로 총 60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552억원~708억원의 공모자금은 위탁 운영 중인 골프장의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와 마케팅 강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증권업계 CEO NPK 대표단 美 실리콘밸리·시애틀 방문

한국금융투자협회

는 오는 9일까지 권용원 금투협회장(사진)과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을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NPK’는 협회가 회원사 대표이사로서 대표단을 구성해 해외 자본시장 관련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업계 공동 프로젝트다.

대표단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banker(Tech Banker)인 골드만삭스, 로보어드바이저 중심의 증권사인 찰스슈왈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방문한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실리콘밸리에서 진행 중인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기회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와 분석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알파벳의 연구조직인 구글X, 테슬라, 미국 3대 로펌중 하나인 모건 루이스 및 벤처캐피탈 등을 만난다. 대표단은 구글과 테슬라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직접 체험해 기술과 산업, 인류 생활의 미래상을 점검하고, 국내외 투자 기회 물색은 물론 관련 법률 이슈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애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이그제큐티브 세미나에 참가해 신기술이 기업의 혁신과 가치창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한국증권업계의 비즈니스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용원 회장은 “이번 증권업계 대표단 방문을 통해 기술과 산업 발전의 미래상과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점검하고 국내 증권사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매출 60%가 그룹서 발생... ‘안정적 수익’ 장점

아시아나IDT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안정성 극대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정보기술(IT)서비스 전문기업 아시아나IDT가 내달 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IDT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7, 8일 수요예약을 거쳐 14, 15일 청약 실시하고 내달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IDT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계열사 내부시장)을 보유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이 그룹 매출로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성이 장점이다.

아시아나IDT는 항공·운송 IT 전문

기업으로 해당분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 3사에 IT 서비스를 구축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스타항공에 IT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향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및 해외 LCC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세창 아시아나IDT대표는 “항공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아시아나IDT는 오랜 기간 운영해온 경험으로 업계내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IDT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49억원, 영업이익 172억원,

당기순이익 23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창 대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해까지 계열사로 존재하던 금호타이어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사라지게 됐지만 그만큼 다른 부문의 유기적 성장을 통해 회복했다”고 전했다.

실제 아시아나IDT는 항공 운송에 집중돼 있던 매출 포트폴리오를 금융, 건설 부문으로 다각화해 매출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 고객사는 1644개로 2013년과 비교해 16.5% 늘어났다.

아시아나IDT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9300원~2만4100원으로 총 330만주를 공모한다. /손엄지 기자